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6년 9월 29일 기사입니다.

[경제플러스]갯북아 신선한 커피...세계인 입맛 사로잡다



中 설빙프랜차이즈 30곳 개설
베트남·라오스·태국시장 진출

최신 트렌드 카페 창업 컨설팅
연간 내수 7억·수출 19만달러
지역 인력 일자리 창출도 앞장

주식회사 로스팅컴퍼니로움은 청년창업자 이동희(32) 대표가 2012년 강릉에서 카페장비와 재료판매 A/S 유지보수 회사인 'ROUM'으로 창업했다. 이후 제조업인 커피로스팅 사업과 카페창업, 컨설팅사업으로 확장했으며 누구나 쉽게 카페를 창업할 수 있도록 대형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1월 로스팅컴퍼니로움으로 정식 창립했다.

개인사업자로 출발한 로움은 2014년 중국에 진출해 30개의 설빙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했다. 현재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진출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텐진의 한 기업과 투자 및 업무협약을 맺어 중국에서 처음으로 퓨전한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7일에는 라오스경제사절단 초청 비즈니스상담회에도 참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 이번 방문은 라오스 최초의 정상 수행 경제사절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신규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국제식품박람회'에 빙수 주재료인 로움 4종 파우더로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중국내 2,000여개 매장을 운영중인 '키스키티'와 협업으로 지난 상하이 충칭 등 주요도시 키스키티 매장 내 로움 설빙카페를 개설하고 이달 중으로 파우더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원두커피 제조도 로움의 대표 제품이다. 로움커피의 장점은 최대 생두보관일(수입일 기준 3개월) 로스팅 직후 1일 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최적의 원두커피 맛을 낼 수 있다. 품질보증에도 힘써 강릉원주대 해양생물연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가 품질 관리를 연 2회 실시하고 한국커피협회와 강릉커피협회 등과 커피품평도 갖는다.

또 카페창업자를 위해 이탈리아로부터 커피머신을 수입 공식 판매하고 대여하는 등 카페장비 유통과 A/S사업도 하고 있다.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카페창업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판매상권 분석, 메뉴 결정 최신 트렌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

이와 함께 바리스타 아카데미를 열고 로움만의 특별한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로움의 노력으로 로움은 양적인 결과도 거뒀다. 지난해 내수매출이 7억 7,000만원을 달성했으며 수출실적도 19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6만 달러를 올렸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도 앞장서 장애인 일자리창출센터 사랑의 일터 지원으로 강릉시청에 카페솔향을 개설했으며 지역에서 7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동희 대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커피를 만드는 것은 물론 카페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겠다”며 “강원도를 대표하는 유망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